

한국어 ‘-지 말’ 구성 연구

오 유 상*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지 말’ 구성이 나타나는 분포를 관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 말’이 지니는 통사·의미적 특성을 밝히는 데에 있다. 한국어에서 평서문의 부정은 ‘안, 못’ 등의 부정 부사나 ‘-지 않-’, ‘-지 못하-’ 등 부정의 보조용언을 통해 실현된다. 하지만 ‘-지 않-’이나 ‘-지 못하-’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일 수 없고, ‘-지 말-’이 이들을 대신한다. 다음을 보자.

- (1) 가. 밤에는 노래를 부르지 { 않는다, 못한다, *만다. }
- 나. 밤에는 노래를 부르지 { 않니, 못하니, *마니? }
- 다. 밤에는 노래를 부르지 { *않아라, *못해라, 마라. }
- 라. 밤에는 노래를 부르지 { *않자, *못하자, 말자. }

(1가~나)에서 ‘-지 않-’, ‘-지 못하-’의 자리에는 ‘-지 말-’이 나타날 수 없다. 반대로 (1다~라)의 ‘-지 말-’은 ‘-지 않-’이나 ‘-지 못하-’로 대체될 수 없다. 이처럼 ‘-지 말-’은 ‘-지 않-’이나 ‘-지 못하-’와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몇몇 연구에서는 ‘-지 말-’을 문장 유형에 따른 보충법적 요소로 다루기도 하였다.¹⁾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1) 최현배(1971), 서정수(1994)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정민(1977)은 ‘-지 말-’이 ‘기원(optative)’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상복(1979)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도 ‘-지 말-’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로써 ‘-지 않-’이나 ‘-지 못하-’와는 독립적으로 ‘-지 말-’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가. 나는 네가 가지 말기를 바란다. (이정민 1977: 107)

나. 영수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말걸. (이상복 1979: 23)

다. 학교에 가지 말까? (이상복 1979: 23)

(2가~다)의 예들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 말-’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닌 다른 문장 유형에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가)는 ‘기원’을 나타내는 문장의 내포절에 ‘-지 말-’이 쓰인 경우이고, (2나)와 (2다)는 각각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지 말-’이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 말-’의 다양한 출현 환경에 주목하여 그 통사·의미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 말-’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 말-’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대부분 용언 ‘말다’에 대한 하위 연구로써 존재한다. ‘말다’는 그 의미에 따라 부정문의 구성 요소로 논의되거나 그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어휘로서 다뤄져 왔다. 또한, ‘말다’를 본용언으로 볼 것인지, 보조용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복잡한 논의 양상은 보조용언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 간의 견해차와 ‘말다’가 보이는 다양한 분포 및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본고는 ‘-지 말-’ 구성의 분포와 특성을 주제로 삼고 있으므로 ‘말다’ 혹은 ‘-지 말-’ 구성의 분포와 의미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최현배(1971)은 ‘말다’를 ‘아니하다’, ‘못하다’와 함께 부정의 보조용언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의미를 ‘금지’ 또는 ‘중지’의 의미로 보고 있다. 특히, ‘-지 말-’ 구성에 대해서는 그 분포를 명령문과 청유문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확인하였듯이 ‘-지 말-’의 분포가 대체로 ‘-지 않-’이나 ‘-지 못

하.’와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서정수(1994) 역시 ‘말다’가 ‘아니하다’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국어의 기본 부정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민(1977)은 ‘말다’ 구성이 명령문의 범주에 속하며 부정문을 형성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주절에 원망(願望)동사가 있으면 ‘말다’가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와는 구분된다. 또한, 이정민(1977)은 ‘말다’ 구성에 ‘주어진 동작 또는 상태 변화와 관련된 의지(意志)의 양상이나 제어가능성의 가정(假定)’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한편, 이상복(1979)는 ‘말다’를 부정의 보조용언으로 다루면서 그 기본적인 의미가 ‘중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세영(2001)도 ‘말다’의 기본 의미가 ‘중단’이며, 나머지 의미는 문맥에 따라 파생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복(1979)는 ‘말다’가 의문형 어미 ‘-(으)ㄴ까’나 평서형 어미 ‘-(으)ㄴ걸’과 결합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문장 유형에 따른 보충법적 요소로서 연구되던 ‘말다’가 독립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김성화(1989)는 ‘말다’를 부정소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 어휘로 다루며, 특히 종결상의 의미 기능에 주목한다. 뿐만 아니라 ‘-지 말-’, ‘-다가 말-’, ‘-고 말-’ 등의 구성이 지니는 의미를 모두 ‘단절성’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이상복(1979)와 이세영(2001)이 ‘말다’의 의미를 ‘중단’으로 본 것과 상통한다.

권미영(1996)은 중·근세 국어 자료를 현대 국어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말다’가 본래 ‘부정’, ‘중단’, ‘완결’ 등의 다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현대 국어로 넘어 오면서 그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다고 보았다. 이지영(2005) 역시 ‘말다’ 구문의 역사적 변화를 검토하였는데, 여기서 ‘말다’의 쓰임은 주어진 상황과 관여적인 맥락에 쓰이는 경우와 주어진 상황과 비관여적인 맥락에 쓰이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는 그 의미에 따라 다시 ‘중단’, ‘금지’, ‘반대상황’으로 나뉘는데, 이지영(2005)는 ‘중단’의 의미가 ‘부정’과 연관을 맺는다고 보았고, ‘금지’의 의미를 지닌 ‘말다’는 점차 ‘명령’, ‘의무’, ‘당위’의 발화 효력이 드러날 수 있는 문맥에서만 쓰이게 되어 그 쓰임의 범위가 좁아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선영(2005)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지 말-’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부정’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그 분포에 따라 ‘금지’나 ‘단순부정’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 않-’, ‘-지 못하-’, ‘-지 말-’ 구성의 의미를 서로 비교하여 ‘-지 말-’ 구성이 ‘-지 않-’, ‘-지 못하-’와 구분되는 두 가지 기준으로

서 ‘행동부정 실천 결정 여부’와 ‘행동부정 실천 결정자’를 각각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 않-’과 ‘-지 못하-’는 행동부정의 실천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반면, ‘-지 말-’은 그렇지 않다. 행동부정 실천 결정자 역시 ‘-지 않-’과 ‘-지 못하-’는 화자인 반면, ‘-지 말-’은 청자이다.

지금까지 ‘말다’ 구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말다’ 구성이 보이는 다양한 의미 양상을 하나로 묶으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즉, ‘말다’의 의미를 하나로 기술하려는 것은 경제성의 측면에서 유의미할 수 있지만, 선행요소와 분포에 따라 발생하는 의미적 다양성을 하나로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각각의 ‘말다’ 구성이 지니는 개개의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말다’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선영(2005)의 연구를 제외하면 각각의 ‘말다’ 구성에 대한 개별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 말-’ 구성의 개별적 특성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조사한 ‘-지 말-’ 구성의 다양한 분포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 말-’ 구성이 여러 문장 유형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명령이나 청유, 즉 지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지 말-’의 의미적 특성을 밝힐 것이다. 김선영(2005)에서 ‘-지 말-’의 의미를 분포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지 말-’의 기본적인 의미를 ‘부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 말-’ 구성이 서상법(irrealis)의 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II. ‘-지 말-’의 분포

이 장에서는 ‘-지 말-’의 다양한 출현 환경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 말-’이 명령이나 청유 등 지시의 효력²⁾을 지닌 문맥에만 나타

2) 지시의 본질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명령’이나 ‘청

〈표 1〉 ‘-지 말-’과 결합하는 후행 요소

| | | |
|----------|----------|--|
| 종결 어미 | 격식체 종결어미 | -십시오, -시라, -소서, -옵소서, -게, -게나, -거라, -렴, -러무나, -르지어다, -오, -구려, -어, -어라, -렸다, -라, ³⁾ -비시다, -세, -자 |
| | 반말체 종결어미 | -르까, -지, -라니까, -자니까, -라고, -자고, -라면서, -자면서, -라나, -자나, -라니, -자니, -르걸, -어야지 |
| 연결어미 | | -고, -며, -게, -도록, -어야, -어, ⁴⁾ -르지니 |
| 전성어미 | | -르, ⁵⁾ -기 |
| 탈종속화어미 | | -든지, -든가, -었으면 |

남을 밝히려 한다. 말뭉치를 기반으로 확인한 ‘-지 말-’ 구성의 후행 요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 말-’과 결합하는 후행 요소를 크게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그리고 전성어미로 나누었다. 종결어미는 다시 격식체 종결어미와 반말체 종결어미로 나누었는데, 이는 반말이 문장 유형을 표시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격식체 종결어미는 그것이 표시하는 문장 유형과 관련하여 그 효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반말체 종결어미는 문장 유형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을 구별하여 ‘-지 말-’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든지’와 ‘-든가’, ‘-었으면’에 대해서는 탈종속화어미의 자격을 주어 따로 분류하였다. 탈종속화(subordination)란, 종속절이나 의존적 구성이 주절처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문숙영 2015: 1), ‘-든지’와 ‘-든가’, ‘-었으면’은 이러한 종결어미화가 의심되는 것들이다.⁶⁾⁷⁾ 본고에서는 문속

유, ‘요청’, ‘권고’, ‘제의’, ‘기원’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맥은 모두 지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라’는 간접 명령(고영근, 1976) 혹은 절대 명령(임홍빈, 1983)으로 불리는 특수한 명령문을 표시한다. 이는 화자가 청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절대문의 일종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추상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명령하는 할 때 쓰인다.
- 4)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잇는, 이른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반말체 종결어미 ‘-어’와는 구별된다.
- 5) 전성어미 ‘-르’이 ‘-지 말-’과 결합할 때에는 대부분 ‘것’을 동반하여 ‘-르 것’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2015)의 논의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지 말-’과 결합할 때에도 유의미한 특징을 보인다고 판단하여 다른 어미들과 구분하였다.

이 장에서는 위의 분류를 기준으로 주목할 만한 ‘-지 말-’의 분포와 특징들을 살펴보고 검토하여 ‘-지 말-’이 지시의 효력을 갖는 문맥에서만 나타남을 보이고자 한다. 대부분의 예문은 말뭉치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추출된 예문이 너무 길 경우에는 본고의 논의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변형이 있었음을 미리 밝힌다.

1. 종결어미 앞

1) 격식체 종결어미

‘-지 말-’과 결합하는 격식체 종결어미는 모두 명령형 혹은 청유형 종결어미이다.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 말-’은 다른 문장 유형보다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주로 나타나며, 모든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에 대해 결합이 가능하다. 우선, ‘-지 말-’과 명령형 종결어미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자.

- (3) 가. 오늘은 집에 { 가지 마, 가지 말거라. }
 나. 너무 { 무리하지 말게나, 무리하지 말렴. }
 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3가~다)에서는 ‘-지 말-’ 구성이 다양한 명령형 종결어미와 결합되고 있

-
- 6) 문숙영(2015)에 따르면 ‘-든자’와 ‘-든가’를 탈종속화의 예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문장이 종결될 경우에 그 선택항이 드러나지 않는다.
 - (2) 후행 동사가 명령의 효력을 가질 때에만 생략될 수 있다.
 - (3) ‘-지 않-’에 의한 부정이 불가능하다.
- 7) 문숙영(2015)에 따르면 ‘-었으면’을 탈종속화의 예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었-’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 (2)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화자의 ‘바람’을 표현한다.
 - (3) ‘-요’와 결합할 수 없다.
 - (4) 복원할 수 있는 후행 동사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다. 그런데 (3가~다)의 어조는 모두 다르다. 가령, (3가)는 명령조라고 할 수 있지만, (3나)는 ‘권고’나 ‘제의’로 해석된다. (3다)는 ‘기원’에 가깝다. 이처럼 ‘-지 말-’이 명령형 종결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청자 대우법의 등급에 따라 그 완곡한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성환 1998: 414).

다음으로 ‘-지 말-’ 구성이 청유형 종결어미와 결합한 경우를 보자.

(4) 가. 오늘은 { 가지 맙시다, 가지 마세, 가지 말자. }

(4가)는 대표적인 청유형 어미 ‘-ㅂ시다’, ‘-세’, ‘-자’에 ‘-지 말-’이 결합된 문장들이다. ‘-지 말-’은 이처럼 청유형 종결어미와도 자유롭게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지 말-’이 청유형 종결어미와 결합할 때, 1인칭 단수 주어에는 결합되지 않는다(김선영 2005: 335).

(5) 가. 나도 한 곡 부르자.

나. 저 좀 안으로 들어갑시다. (고성환 1998: 430)

다. *나도 한 곡 부르지 말자.

라. *저 좀 안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5가)와 (5나)는 모두 1인칭 단수를 주어로 하며, 청유형 어미로 문장이 종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화·청자의 공동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화자의 행위를 위해 청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요청’ 내지는 ‘명령’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5다~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 말-’이 결합할 수 없다.⁸⁾ 즉, 대당되는 부정 청유문이 없는 셈이다.

2) 반말체 종결어미

‘-지 말-’이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종결어미에는 ‘-ㄴ까’, ‘-지’, ‘-라니까’,

8) 김선영(2005: 335)에서는 “나는 저러지 말자.”와 같이 1인칭 단수를 주어로 하는 부정 청유문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단독적 장면’(고영근 1976: 17)에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매우 예외적이다.

‘자니까’, ‘라고’, ‘자고’, ‘라면서’, ‘자면서’, ‘라나’, ‘자나’, ‘라니’, ‘자니’, ‘크걸’, ‘어야지’ 등이 있다.⁹⁾ 이들은 모두 반말체 종결어미로 문장 유형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이러한 어미들은 대부분 여러 문장 유형에 통용되곤 하는데, ‘지 말.’과 결합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지시의 효력만을 보인다. 지금부터 이러한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지 말.’이 ‘크까’, ‘어야지’¹⁰⁾ 등과 결합되는 경우이다.

(6) 가. 그냥 살 빼지 말까?

나. 오늘은 회사에 가지 말까? (박재연 2010: 146)

다. 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 이런 상품은 만들지 말아야지. (박재연 2006: 258)

(6가~나)는 ‘지 말.’에 ‘크까’가 결합된 경우이다. 박재연(2006)에 따르면 ‘크까’는 인식 양태 용법과 행위 양태 용법을 모두 지니는데¹¹⁾, 이들이 ‘지 말.’과 결합할 때에는 오직 행위 양태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이는 ‘지 말.’이 청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의 수행을 촉발하는 지시의 효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6가~나)는 문장의 의미 또한 명령이나 청유에 가깝다. 이들의 주어로는 1인칭 단·복수만이 가능한데, 주어가 1인칭 복수일 때에는 화·청자의 공동 행위에 대한 청자의 의향을 묻는 ‘제안’의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7가~나)의 주어가 1인칭 단수일 때에는 단순의문문으로 보이기 쉬우나, 박재연(2006: 217)은 이들 문장에 대한 대답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기대된

9) ‘라니까’, ‘자니까’, ‘라고’, ‘자고’, ‘라면서’, ‘자면서’, ‘라나’, ‘자나’, ‘라니’, ‘자니’ 등은 모두 인용 구성에서 형성된 종결어미로, 이미 명령형·청유형 어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2.1.1.에서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10) 이때의 ‘어야지’는 ‘어야 하.’에 ‘지’가 결합된 통사 구성과는 구분된다. (7마~바)는 ‘어야 하.’와 달리 ‘의무’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하.’를 복원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11) 본고에서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의 구분은 박재연(2006)을 따른 것이며, 이에 따르면 전자는 ‘알리기(inform)’의 언어 사용과 관련되고, 후자는 ‘행동하기(act)’의 언어 사용과 관련된다. 즉, 행위 양태는 수행성과 관련되며, 따라서 지시의 효력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지 말-’이 ‘-르까’와 결합할 경우에 그 주어가 1인칭 단수이더라도 명령 혹은 청유의 효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지 말-’이 ‘-어야지’와 결합할 경우에는 (7다~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짐’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며, 1인칭 주어 제약을 갖는다. ‘다짐’은 화자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청유’ 내지는 ‘명령’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시의 효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의 ‘-지 말-’은 격식체 종결어미 중에서도 명령형 및 청유형 어미와 자유롭게 결합한다. ‘-지 말-’이 명령형 종결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는 청자 대우법의 등급에 따라 그 의미가 ‘명령’, ‘권고’, ‘제외’, ‘탄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 ‘-지 말-’은 청유형 종결어미와도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1인칭 주어에는 제약이 있다. 즉, ‘-지 말-’은 화·청자의 공동 행위를 요구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청유문에서만 나타난다.

또한, 반말체 종결어미가 ‘-지 말-’과 결합할 경우에는 그 문맥이 지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지 말-’과 결합하는 ‘-라니까’, ‘-자니까’, ‘-라고’, ‘-자고’, ‘-라면서’, ‘-자면서’, ‘-라나’, ‘-자나’, ‘-라니’, ‘-자니’ 등의 통용 어미는 모두 명령문 혹은 청유문의 인용 구성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르까’는 반말체 종결어미로서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의 의미를 모두 갖지만 ‘-지 말-’과 결합할 때에는 행위 양태 용법으로만 쓰이며, 그 의미는 ‘제안’에 가깝다. ‘-지 말-’이 ‘-르까’나 ‘-어’와 결합하여 절문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대답이 명령이나 청유와 관련이 있다. ‘-어야지’의 경우에는 ‘-지 말-’과 결합하여 ‘다짐’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1인칭 주어에 대한 일종의 명령 내지는 청유로 볼 수 있다.

2. 연결어미 앞

‘-지 말-’은 연결어미와도 결합하는데, ‘-지 말-’과 결합하는 대표적인 연결어미로는 ‘-고’, ‘-며’, ‘-게’, ‘-도록’, ‘-어야’, ‘-어’, ‘-르지나’가 있다. 특히, 절과 절을 잇는 한국어의 많은 연결어미들 중에서 ‘-고’와 ‘-며’만이 ‘-지 말-’과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지금부터는 ‘-지 말-’이 이러한 연결어미와 결합되는 경우들을 검토해보자 한다.

먼저 ‘-지 말-’과 ‘-고’, ‘-며’가 결합되는 경우를 보자.

(7) 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빼내라.

나. 배합액을 얼룩 위에 가만히 떨어뜨린 채 문지르지 말고 그냥 둔다.

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라. 갑은 을을, 을은 갑을 의심하지 말며 피차에 진지한 애국심에 호소해 보자.

마. 서인의 의복은 8, 9세를 지나지 말고, 초립은 20축을 지나지 말며, 배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짜도록 하였다.

(7가~다)는 ‘-지 말-’이 연결어미 ‘-고’와 결합한 경우이고, (7라~마)는 ‘-지 말-’이 연결어미 ‘-며’와 결합한 경우이다. 이 경우 연결어미에 의해 접속되는 후행절은 지시의 효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7가)와 (7라)의 후행절은 명령형·청유형 어미로 종결되고 있고, (7다)에서는 기원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7나)는 후행절이 ‘-나’로 종결되는데, 박금자(1987: 86)에 따르면 이는 선어말어미 ‘-나’를 통해 해당 문장의 명제적 조건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청자가 화자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행동하도록 하는 명령의 효력을 지닌다. (7마)는 후행절에 ‘-도록 하-’의 사동구성이 사용되고 있다.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시의 효력과 매우 밀접하다. 결국 (7가~마)에서 ‘-지 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후행절이 지닌 지시의 효력이 연결어미 ‘-고’와 ‘-며’에 의해 선행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좀 더 분명한 확인을 위해 다음을 보자.

(8) 가. *반대하지 마나 가급적 조심해라.

나. *지금은 그리 와 닿지 말지만 부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8가~나)의 예문은 대조의 연결어미 ‘-나’, ‘-지만’에 ‘-지 말-’이 결합된 예문인데,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고’, ‘-며’와 의미 범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나’나 ‘-지만’이 ‘-지 말-’과 결합할 수 없는 것은 후행절의 효력이 선행절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지 말-’이 ‘-나’, ‘-지만’ 등의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후행절이 지닌 지시의 효력이 연결어미 자체의 의미로 인해 선행절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이에 선행절은 ‘-지 말-’이 출현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결국 ‘-지 말-’이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후행절이 지시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연결어미가 후행절의 효력을 선행절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수많은 연결어미 중에서 ‘-지 말-’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가 극히 드문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결어미 ‘-게’와 ‘-도록’¹²⁾이 ‘-지 말-’과 결합할 때에는 ‘-게 하-’, ‘-도록 하-’의 형태로 나타나며, ‘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시동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 (9) 가. 제발 아이들에게 해가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 이번만 봐주고 다음번에는 오지 말게 합시다.
 다. 야채를 곁들이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한다.
 라. 설립신고서를 내주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9가~라)는 ‘-지 말-’과 ‘-게’, ‘-도록’이 결합한 경우인데, (9가~다)와 같이 사동의 구성이 나타나거나 (9라)와 같이 지시동사와 함께 나타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시의 효력과 관련이 있다. 한편, ‘-도록’이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9다~라)에서 ‘-도록’ 뒷부분을 생략하여도 명령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¹³⁾

‘-지 말-’은 연결어미 ‘-어야’와도 결합한다. 다음을 보자.

- (10) 가. 세계화는 민주통일을 거쳐서만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서로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얼굴 붉히지 않고 살지 않겠수.

12) ‘-게’와 ‘-도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흥빈(1975)에 따라 ‘-게’를 부사형 어미로 다루고, ‘-도록’ 역시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3) ‘-도록’과 유사한 ‘-게’는 어째서 종결어미로 쓰이지 않는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부터 이승희(2004)는 현대 국어의 명령형 종결어미 ‘-게’가 사동 구문의 명령형 ‘-게 하(여)라’, ‘-게 하소’에서 ‘하-’ 이하의 생략에 의해 나온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다. 이런 상품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말았어야지. (박재연 2006: 258)

(10가)는 ‘-지 말-’과 ‘-어야 하-’가 결합하여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어야 하-’는 강제성과 필연성을 띄고 있으며,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수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시의 효력과 관련이 있다. (10나)는 ‘-어야’의 뒤에 ‘하-’가 아닌, 절이 따라오고 있는데, 이 경우 후행절이 나타내는 명제의 내용을 충족시키려면 선행절의 명제가 나타내는 명제의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즉, (10나)에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어야’ 역시 ‘의무’의 의미가 유지된다. 한편, (10다)는 ‘-지 말-’에 ‘-어야 하-’의 통사 구성과 어미 ‘-지’가 결합된 것이다. 이는 자칫 (6마~바)의 ‘-어야지’와 혼동될 수 있는데, (10다)는 그 의미가 오직 ‘의무’로만 해석된다.¹⁴⁾

‘-지 말-’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잇는 이른바 보조적 연결어미 ‘-어’와 결합할 경우에는 해당 내포문의 서술어가 청유형 또는 명령형 어미를 달고 나타난다.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해보자.

(11) 가. 동포들을 결코 잊지 말아 주세요.

나. 백두산 문제는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1가~나)의 예문에서는 ‘-어’에 의해 후행 용언의 종결어미가 지닌 효력이 선행절에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명령형 어미로 종결되고 있는 후행 용언의 지시의 효력이 ‘-어’에 의해 선행절에 연결되어 ‘-지 말-’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고’, ‘-며’에 의해 후행절의 효력이 선행절에 연결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제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지 말-’이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후행절이나 후행 용언이 지시의 효력을 갖는 경우로 제한된다. 연결어미 ‘-고’, ‘-며’가 ‘-지 말-’과 결합할 때에는 후행절에 명령형 및 청유형 어미로 종결어미, 지시동사 등이 나타

14) 이에 대해 박재연(2006: 258)은 ‘-어야지’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되면 반드시 ‘의무’로만 해석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10다)의 ‘-어야지’는 ‘다짐’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10다)에 상정할 수 있는 주어는 2인칭 또는 3인칭이다. 이는 (6마~바)의 ‘-어야지’가 1인칭 주어만을 취하는 것과 대비된다.

난다. ‘-지 말-’이 ‘-게’, ‘-도록’과 결합할 때에도 그 후행 용언으로는 ‘하-’가 결합되어 사동 구성을 형성하거나 지시동사가 나타나며, ‘-어야’와 결합 시에도 ‘의무’의 의미로 해석되어 지시의 효력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보조적 연결어미 ‘-어’와의 결합에 있어서도 후행 용언은 명령형 혹은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여 지시의 효력을 보인다.

하지만 후행절이나 후행 용언이 지시의 효력을 갖는다고 그 선행절에 ‘-지 말-’이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연결어미들이 후행절 혹은 후행 용언의 효력을 선행절까지 끌어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 말-’과 결합하는 연결어미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수많은 연결어미를 고려할 때 그 수가 매우 적다.

3. 전성어미 앞

‘-지 말-’과 결합하는 전성어미에는 관형사형 어미 ‘-르’와 명사형 어미 ‘-기’가 있다. ‘-르’와 ‘-지 말-’이 결합할 때에는 의존명사 ‘것’이 따라온다. 사실상 ‘-지 말-’은 ‘-르 것’과 결합하는 것이다. ‘-지 말-’이 ‘-르 것’의 구성이나 ‘-기’와 결합할 경우에는 주절의 서술어로 지시동사가 나오거나 명령형 혹은 청유형 어미로 문장이 종결된다.

다음의 예들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12) 가. 제품이 폴리스티렌으로 되어있는 제품은 구입하지 말 [기, 것].
 나. 저자는 감원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 이광수의 자기변명을 더 이상 듣지 말기로 합시다.
 라. 아이를 절대로 나무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 워터스크린쇼 등 이색 공연도 놓치지 말기를.

‘-지 말-’이 ‘-르 것’이나 ‘-기’와 결합하는 경우 (12가)처럼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며, 명령의 효력을 지닌다.¹⁵⁾ (12나)는 모절의 서술어로 지시동사가 나타나고 있고, (12다)와 (12라)는 각각 청유형 어미 ‘-ㅂ시다’, 기원동사 ‘바라

15) 이에 대해서는 박금자(1987: 77~82)을 참조하였다.

다'에 의해 지시의 효력을 갖는다. (12마)와 같이 기원동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기원'의 의미는 유지된다.¹⁶⁾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 말-'이 '-르'와 결합할 때에는 그 뒤에 주로 의존명사 '것'이 따르며, 이들은 '명령', '청유', '당위'의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지 말-'이 '-기'와 결합할 때에도 역시 '청유'나 '기원'과 같은 지시의 효력과 관계되고, 이는 탈종속화된 '-기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탈종속화어미

'-지 말-'이 '-든지', '-든가', '-었으면'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종결어미화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앞서 설명했던 대로 이들은 종속절이나 의존적 구성이 주절처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탈종속화의 예이며,¹⁷⁾ '-지 말-'이 이들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든지'와 '-든가', '-었으면'이 명령, 기원 등 지시의 효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먼저 '-지 말-'이 '-든지', '-든가'와 결합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13) 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말든지 해.

나. 난 피곤해서 한숨 잘 테니까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고비비 2013: 32)

다. 공부가 그렇게 싫으면 학교를 다니지 말든가 해라.

(13가)와 (13다)에서처럼 '-지 말-'과 '-든지'나 '-든가'가 결합하는 경우 후행동사는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이는 선택항을 나열하는 (13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3나)에서는 부르거나, 부르지 않거나 하는 두 개의 선택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말든지'의 앞에는 '부르지'가 생략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13가~다)에서 '-든지'와 '-든가' 이하는 생략이 가능하다. 고비

16) 문숙영(2015: 27~31)는 이를 탈종속화의 한 예로 설명한다. '-기를'의 후행동사가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생략된다는 점, 복문일 때와 달리 2인칭 주어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요'가 붙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17) '-든지'와 '-든가'를 탈종속화어미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각주 6번에서, '-었으면'을 탈종속화어미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각주 7번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비(2013: 32)에 따르면 이러한 ‘-든지’와 ‘-든가’는 ‘제안’으로 해석되는 일이 많으며,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은 ‘명령’에 가깝다.

한편, ‘-지 말-’이 ‘-있으면’과 결합할 경우에는 ‘조건’이나 ‘가정’과 같은 일반적인 ‘-면’의 의미와 달리 화자의 ‘기원’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14) 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 두 분이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 제목만 보고 그저 그런 영화라고 속단하지 말았으면 한다.

(14가~다)는 ‘-지 말-’과 ‘-있으면’이 결합한 문장들인데, 모두 화자의 ‘기원’을 의미한다. ‘-있으면’이 ‘기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 말-’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14가~다)의 모든 예문에서 ‘-있으면’ 이하는 모두 생략이 가능하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지 말-’은 ‘-든지’, ‘-든가’, ‘-있으면’ 등의 어미와도 결합한다. ‘-지 말-’이 ‘-든지’와 ‘-든가’와 결합할 경우에는 그 발화수반력이 명령에 가깝다. ‘-있으면’에 ‘-지 말-’이 결합할 경우에는 화자의 ‘기원’을 드러낸다.

III. ‘-지 말-’의 의미

이 장에서는 ‘-지 말-’ 구성의 일차적인 의미적 특징을 ‘부정’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지 말-’이 나타나는 분포가 비수행적(non-performative) 단순진술문이 아니고, 지시의 효력과 관련되어 있음은 이미 2장에서 충분히 확인하였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문맥에서의 ‘부정’을 다시 정의하고, 앞서 살펴본 예문들을 통해 ‘-지 말-’이 지니는 ‘부정’의 의미를 다시 확인해볼 것이다. 또한, 서법(mood)의 측면에서 볼 때, ‘-지 말-’은 비현실 사태만을 묘사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본고는 ‘-지 말-’의 서상법 표지로서의 지위도 함께 확인하려 한다.

1. 부정명령

‘-지 말-’이 부정명령의 표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첫째는 ‘-지 말-’과 명령의 효력 간의 관계이며, 둘째는 ‘-지 말-’이 지니는 부정의 효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장에서 ‘-지 말-’이 ‘명령’, ‘요청’, ‘권고’, ‘제안’, ‘충고’, ‘다짐’, ‘당위’, ‘청유’, ‘기원’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분포에만 등장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지시의 효력과 관계되며, 따라서 ‘-지 말-’과 명령의 효력 사이의 관계는 이미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 말-’이 지니는 부정의 효력을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서문이 나타내는 명제나 사태가 성립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문장 혹은 대당 긍정문과 상보적인 논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정의하곤 한다. 다시 말해 부정문은 그 진리치가 긍정문과 서로 대립되는 명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이지수 2016: 143).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5) 가. 철수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이지수 2016: 143)
 나. 철수가 도박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이지수 2016: 143)
 다. 철수가 도박을 하겠다고 약속했어.

(15가)는 보문 부정에 해당하고, (15나)는 수행 동사의 부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당 긍정문은 모두 (15다)가 되는데, 진리치의 대립이라는 차원에서 부정문을 정의하면 (15가)는 설명이 되지만 (15나)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동작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부정문에 대한 기존의 정의가 사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지시의 효력과 밀접한 ‘-지 말-’ 역시 동작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지수(2016: 133~136)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세 가지 부정을 받아들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양태 부정, 명제 부정, 수행 부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6) 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움직이지 마!
 나.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움직이지 마!
 다. 움직이지 말든지.

(16가)는 양태 부정으로 앞으로 나타날 사태, 즉 사람들이 움직일 사태를 부정하기 위해 지시하는 것이고, (16나)의 명제 부정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태, 즉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태를 부정하기 위해 지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6다)의 움직이는 사태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시 화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장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모두 양태 부정, 명제 부정, 수행 부정의 범위 내에서 해석된다. 이로써 ‘-지 말-’의 기본 의미가 ‘부정’임이 증명된 것이다. 좀 더 분명한 확인을 위해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7) 가. 늦게까지 놀러 다니지 말거라.
 나. 오늘은 가지 말자.
 다. 교실에서 뛰어 다니지 마라.
 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빼내라.
 마. 갑은 을을, 을은 갑을 의심하지 말며 피차에 진지한 애국심에 호소해 보자.

- (13) 나. 난 피곤해서 한숨 잘 테니까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고비비 2013: 32)

(17가~마)는 2장에서 살펴본 예문들을 재구성한 것인데, 양태 부정과 명제 부정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가령, (17다)의 문장을 교실에서 뛰어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시한다면 이는 명제 부정이고, 뛰어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지시한다면 이는 양태 부정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예문은 명제 부정과 양태 부정 모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예문 중 수행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13나)의 경우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13나)에서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은 부르거나 부르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겠다는, 즉 지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수행 부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행 부정은 ‘-지 말-’이 선택항을 나열하는 ‘-든지’나 ‘-

든가'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아울러 '-지 말-'은 '결코', '절대로' 등으로 대표되는 부정 극어와의 공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부정문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¹⁸⁾ 임홍빈(1987: 78)에서 부정문의 조건으로 부정극성을 띤 성분과의 공기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 여겨진다.

확인을 돕기 위해 (17가~마)의 예에 '결코'를 붙인 다음의 예를 제시한다.

(18) 가. 결코 늦게까지 놀러 다니지 말거라.

나. 오늘은 결코 가지 말자.

다. 교실에서 결코 뛰어 다니지 마라.

라. 수단과 방법을 결코 가리지 말고 무조건 빼내라.

마. 갑은 을을, 을은 갑을 결코 의심하지 말며 피차에 진지한 애국심에 호소해 보자.

이처럼 '-지 말-'은 지시의 효력을 지니는 분포에서 나타나며, 주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태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부정하기 위해 지시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시의 효력 자체를 취소하는 수행 부정 역시 드물게 존재한다. 2장의 예문들은 이러한 범주 내에서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는 '-지 말-'의 기본 의미가 명령부정이라 결론짓고자 한다.

2. 서상법(irrealis)

지금부터는 '-지 말-'의 또 다른 의미적 특성으로서 서상법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서법은 양태가 문법화된 경우를 일컫는데, 비인구어에서는 서실법(realis) 대 서상법의 대립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서실법은 어떤 실현된 상황을 기술하는 반면, 서상법은 실제로 실현되

18) 단, '-지 말-'이 '-든지'나 '-든가'와 결합할 경우에는 부정 극어의 공기가 불가능하다. '-지 말-' 구성의 수행 부정이 '-든지'와 '-든가'에 의해서만 나타난다는 점과 이 경우 부정 극어가 공기할 수 없다는 점은 '-지 말-'이 '-든지', '-든가'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양상이므로 논의의 보충이 필요하다.

지 않은, 생각 속의 상황을 기술한다(임동훈, 2008: 215).

‘-지 말-’의 서상법적 특징은 그것의 기본 의미인 부정명령과 관련이 있다. 부정명령은 사태가 성립하지 않음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사태를, 명령은 미래의 행위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태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기본 의미로 지닌 ‘-지 말-’은 서상법의 표지로 그 의미 기능이 더욱 확장되어 쓰이는 듯하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서상법 표지로서 ‘-지 말-’ 구성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미숙했던 부분들, 즉 부정명령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우들에 대한 설명도 보충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예들을 보자.

- (19) 가. 이럴 거면 귀엽다고 하지 말지.
 나. 웬만하면 늦지 말지.
 다. 아, 밤새지 말걸.
 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잘 해주지 말걸.

위의 예들은 2장에서 다루지 않은 예문으로 (19가~나)는 ‘-지 말-’에 종결어미 ‘-지’가, (19다~라)는 ‘-지 말-’에 종결어미 ‘-고’가 결합된 경우이다. 반말체 종결어미인 ‘-지’와 ‘-고’는 모두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의 용법을 모두 가지지만, ‘-지 말-’과 결합할 경우에는 그 행위의 수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역시 행위 양태의 용법으로만 해석된다.

(19가~라)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상황을 가정하여 그것이 실현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화자의 ‘후회’가 담겨있다. 그러나 (19가~나)에서처럼 ‘-지 말-’이 ‘-지’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1인칭 주어가 허용되지 않으며, (19다~라)와 같이 ‘-고’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1인칭 주어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19가~라)의 예문은 청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촉발하는 지시의 효력과 관련짓기 어려우며, 따라서 본고는 이를 ‘-지 말-’이 서상법의 표지로 확장되어 쓰이게 된 것이라 보고자 한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6) 가. 그냥 살 빼지 말까?

나. 오늘은 회사에 가지 말까? (박재연 2010: 146)

앞서 살펴보았던 (6가~나)의 예문이다. 이들 문장은 그 주어로 1인칭 단수를 상정하면 단순의문문이 된다. 박재연(2006: 217)은 이들 문장에 대한 대답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기대된다고 지시의 효력과의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상정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지 말-’을 서상법의 표지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듯 ‘-지 말-’이 반사실적 가정 표현에 결합되거나 청자의 의향을 묻는 화자의 질문에 쓰이는 ‘-지 말-’은 명령부정이 아닌 비현실 사태에 대한 진술에까지 ‘-지 말-’이 확장되어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예들을 더 살펴보자.

(20) 가. 내일은 비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 오늘만은 날이 밝지 말았으면 한다.

다. 이렇게 협조 안할 거면 아예 오지를 말든지. (문숙영 2015: 14)

라. 돈이 없으면 빌리지를 말든가.

(20가~나)의 예문은 ‘기원’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어떤 문장이 ‘기원’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지시의 효력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가~나)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역시 ‘-지 말-’의 분포가 비현실 사태로 확장된 것이라 여겨진다.

(20다~라)는 ‘-지 말-’에 ‘-든지’나 ‘-든가’가 결합된 것인데, 앞서는 다루지 않은 예문이다. 문숙영(2015: 10~18)은 이러한 ‘-든지’와 ‘-든가’를 탈종속화의 예로 보고 있으며, 과거에 달성되지 못한 사태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20다~라)의 표현들 역시 반사실적 가정 표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에 결합되는 ‘-지 말-’도 서상법의 표지로 볼 수 있다.

비현실 사태에 대한 표지로 보이는 ‘-지 말-’은 다음의 예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1) 가. 공부하지 말아 봐라, 성적이 잘 나오나.

나. 이제 우리는 졌다고 자만하지 말 것이며, 이겼다고 실망하지 말 것

입니다.

(21가)는 ‘-지 말-’과 보조동사 ‘보다’가 연결어미 ‘-어’에 의해 결합된 형태인데, 이때의 ‘보다’는 ‘가장’의 의미를 나타낸다. 보조동사 ‘보다’가 본래 ‘시도’나 ‘경험’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 말-’과 결합하면 유독 가정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지 말-’이 비현실 사태와, 즉 서상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21나)는 ‘-지 말-’에 ‘-르 것’이 결합된 경우인데 2.3.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지 말-’이 ‘-르 것’과 결합할 경우에는 주절의 서술어로 지시동사가 나오거나 명령형 혹은 청유형 어미로 문장이 종결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21나)는 ‘-르 것’ 뒤에 바로 계사가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르 것-아’는 현대 한국어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분포에까지 ‘-지 말-’이 나타나는 것 또한 ‘-지 말-’이 서상법의 표지로서 그 분포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 말-’과 결합하는 선어말어미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서상법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 (22) 가. 이런 상품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말았어야지. (박재연 2006: 258)
나.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 말-’의 분포에 나타날 수 있는 선어말어미는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전부이다(김선영 2005: 340). 이 중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은 (22다~라)에서처럼 ‘-어야’, ‘-면’과만 결합이 가능한데, 이들은 과거의 사태에 대한 ‘유감’이나 미래에 대한 ‘기원’을 나타낸다. 결국 이들은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날 수 없는 머릿속의 상황, 즉 비현실 사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 과거 형식이 이행하지 못한 비현실 사태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것은 상당수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범언어적 현상이다(문숙영 2005: 194).

한편, 문숙영(2005: 205~215)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과 ‘-르’이 시제가 아닌 상황의 현실 대 비현실의 대립으로 보았고, 임동훈(2008: 240~241)은 더 나아가 명사형 전성어미 ‘-ㄴ’과 ‘-기’도 그러한 대립을 보인다고 주장하였

다. ‘-지 말-’이 이들 중 각각 ‘-르’, ‘-기’와 결합하는 것은 ‘-지 말-’이 서상법의 표지로 해석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3. ‘-지 않-’과의 비교

마지막으로 ‘-지 말-’과 ‘-지 않-’의 비교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지 말-’의 의미적 특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3) 가. 안전벨트를 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²안전벨트를 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 ³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 말기로 결정했습니다.

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김선영 2005: 348)

먼저 (23가~나)의 예문들을 보면, (23나)가 (23가)보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해당 문장이 청자에게 안전벨트를 풀지 않도록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수행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시의 효력을 필요로 하는 문장에서는 단순한 부정을 나타내는 ‘-지 않-’보다는 ‘-지 말-’이 더욱 잘 결합된다. (23다)와 (23라)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알리는 단순진술문으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 않-’이 덜 어색하고, ‘-지 말-’이 어색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 말-’의 부정명령으로서의 의미 기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예문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4) 가. 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 말아야지, 않아야지. }

나. 제발 아이들에게 해가 오지 { 말게, 않게 } 해주십시오!

다. 야채를 곁들이는 것도 잊지 { 말도록, 않도록 } 한다.

라. 세계화는 민주통일을 거쳐서만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 { 말아야, 않아야 } 합니다.

마. 저자는 감원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당황하지 { 말, 않을 }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바. 아이를 절대로 나무라지 { 말기를, 않기를 } 바랍니다.

사. 나를 찾아오지 { 말았으면, 않았으면 } 좋겠어.

(24가~사)는 지금까지 살펴 본 예문들 중에서 ‘-지 말-’과 ‘-지 않-’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24가~사) 중에서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지 않-’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나타날 수 없으며, 따라서 ‘-지 말-’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이 부정명령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24가~사)의 예문들은 그 효력이 ‘명령’이나 ‘청유’, ‘기원’에서 벗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지 말-’이 ‘-지 않-’과 같은 분포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그 명제적 내용이 비현실적 사태를 나타내고 있을 때에만 한정된다. 이는 ‘-지 말-’이 서상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 말-’과 ‘-지 않-’의 분포가 겹칠 수 있는 것은 ‘-지 않-’이 문장의 명제적 상황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결합할 수 있는 데 비해, ‘-지 말-’은 반드시 미실현의 상태에만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이는 ‘-지 말-’과 ‘-지 않-’의 분명한 차이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 말-’과 ‘-지 않-’이 비현실 대 현실의 대립을 이루어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통된 분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3가~라)와 (24가~사)를 보면 ‘-지 말-’의 기본 의미인 부정명령으로서의 특성과 그로부터 확장된 서상법적 특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제껏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 말-’이 본래 부정명령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부정과 명령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비현실성에 의해 그 출현 환경이 확장되고 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 말-’의 분포를 살펴보고 그 의미기능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 말-’의 분포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확인하였으며, 2장에서 이를 자세히 정리하였다. 또한, 2장에서는 ‘-지 말-’의 분포가 보이는 특징을 지시의 효력과 관련지어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 ‘-지 말-’의 의미를 부정명령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부정명령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분포와 의미를 서상법 표지로 바라봄으로써 ‘-지 말-’이 서상법 표지일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지 말-’은 다양한 어미와의 결합이 가능한데, 2장에서는 이러한 분포를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전성어미, 그리고 종결어미화가 의심되는 탈종속화어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 말-’은 주로 명령형·청유형 종결어미 앞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여러 문장 유형에 통용되는 반말체 종결어미와 결합할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지시의 효력을 가지는 분포에만 나타났다.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후행절이 지니는 지시의 효력이 선행절까지 전달될 수 있는 분포에만 ‘지 말-’이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지 말-’은 전성어미 중 ‘-르’, ‘-기’와만 결합했는데, 이 경우 역시 지시의 효력이 확인되었다. 한편, ‘지 말-’은 ‘-든지’, ‘-든가’, ‘-었으면’과도 결합하여 ‘명령’이나 ‘기원’ 등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살핀 분포를 통해 3장에서는 ‘지 말-’의 의미적 특성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고에서는 ‘지 말-’이 지시의 효력을 가지는 분포에만 나타난다고 결론지었고, 이는 단순진술문이 아니므로 ‘진리치의 모순 및 대립’으로서는 부정의 의미가 표현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 말-’이 나타내는 부정의 유형을 양태 부정, 명제 부정, 수행 부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았다. ‘지 말-’이 결합한 문장들은 일어나지 않은 사태를 부정하는 양태 부정, 일어나고 있거나 이미 일어난 사태를 부정하는 명제 부정, 혹은 지시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수행 부정의 세 부류에 각각 포함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정 극어와의 공기에도 거의 어색함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 말-’의 기본 의미를 부정명령으로 결론지었다.

‘지 말-’은 부정과 명령이 비현실 사태와 맺는 관련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쓰이기도 했다. 2장에서 살펴 본 모든 예문들은 지시의 효력과 관계되므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태, 즉 비현실 사태를 나타내었다. ‘지 말-’이 지시의 효력과 무관한 ‘기원’ 표현과 반사실적 가정 표현에 쓰이는 것에서도 서상법 표지로서 ‘지 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인칭 단수 주어의 ‘-르’까와 결합하여 의문문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마치 단순 의문문처럼 보여 부정명령의 의미적 특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 말-’을 서상법의 표지로 보면 이러한 문제 역시 해결된다.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나 탈종속화된 어미 ‘-었으면’, 전성어미 ‘-르’, ‘-기’ 등과의 결합에 있어서도 ‘지 말-’은 그 서상법적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본고는 ‘지 말-’과 ‘지 않-’의 비교를 통해 ‘지 말-’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지 말-’이 지시의 효력을 지니는 분포에 나타나는 반면, ‘-지 않-’은 단순부정에 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 말-’과 ‘-지 않-’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지 말-’이 결합한 문장은 명제적 상황의 미실현 여부가 분명하지만 ‘-지 않-’이 결합한 문장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 말-’이 나타나는 분포나 그 의미적 특성을 부정 명령으로 결론짓고, ‘-지 말-’이 명령문 및 부정문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근거로 서상법 표지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지 말-’이 본래 서상법의 표지일 가능성이 있었는지 점차 확대된 것인지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고, ‘-든가’와 ‘-든지’가 부정 극어와 공기하지 못하는 점이나 한국어 명령문의 수행 부정을 이들과의 결합에서 밖에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과 더욱 풍부한 논의를 추후의 과제로 남기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고비비(2013), 현대 한국어 ‘-든지’와 ‘-든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성환(1998), 문장의 종류,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395-434.
- 고영근(1976), 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7-53.
- 권미영(1996), 동사 ‘말다’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영(2005), 부정 구성 ‘-지 말-’의 통합 양상과 의미, 《국어학》 46, 국어학회, 331-353.
- 김성화(1989), ‘-{지/다가/고} 말-’의 의미기능,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147-174.
- 문숙영(2005), 《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 문숙영(2015), 한국어 탈종속화(Insubordination)의 한 종류, 《한국어학》 69, 한국어학회, 1-39.
- 박금자(1987), 국어의 명령표현 연구, 《관악어문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5-91.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박재연(2010), 이형태 교체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58, 국어학회, 129-155.
- 서정수(1994),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부.
- 이상복(1979), 동사 ‘말다’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12,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39.
- 이세영(2001), ‘말다’ 구성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승희(2004), 명령형 종결어미 ‘-게’의 형성에 대한 관건, 《국어학》 44, 국어학회, 109-131.
- 이정민(1977), 부정명령의 분석, 《어학연구》 13-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05-114.
- 이지수(2016), 한국어 명령문의 문법과 화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지영(2005), 국어의 용언 부정문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 임홍빈(1975), 부사화와 대상성, 《국어학》 4, 국어학회, 39-60.
- 임홍빈(1983), 국어의 ‘절대문’에 대하여, 《진단학보》 56, 진단학회, 97-136.

임홍빈(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국어연구소, 72-99.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